

금리

금리 공부,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뉴스콤 장태민 대표

금리를 빼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듯, 투자와 재테크도 금리를 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 흐름의 핵심이자 투자의 바로미터인 금리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류창렬



유튜브 : 현대오일장
장태민 대표 인터뷰 영상 바로 가기



Q. 금리, 왜 중요한가요?

A. 보통 금리를 경제의 혈액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 속 곳곳을 흘러다니며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금리 역시 경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듯 돈에도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가격이 올라간 셈이니 돈을 빌리기가 버거워지겠죠. 돈과 금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Q.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 사이클에 맞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에 따라 각 시중은행도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결정하고, 그 외 다양한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금리와 물가의 관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안 좋는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정책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 시중에 유입되는 돈도 많아지죠. 하지만 2010년대엔 대체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돈도 제대로 돌지 않아 저금리 환경이 이어졌죠. 2020년 각국은 그나마 조금 올려보려던 금리를 다시 내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등은 기준금리를 다시 0%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 즉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방출합니다. 미국 연준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 자산 규모가 금융위기 때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나기도 했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도 기본적인 통화정책방향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반작용이 생겼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최근 금리까지 크게 오른 거죠. 세계사적인 흐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물가 상승 원인이 됐죠. 현재 이 시점에서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를 꺾지 못한다면 더 큰 경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Q. 지금과 같은 시기에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있나요?

A.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고성장을 구가할 때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다소 꺾이면서 물가와 금리도 내려갔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도 돈을 쉽게 모았던 과거의 고금리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해야겠다는 분을 많이 봤어요. 투자는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모두 잃을 수도 있죠. 10%대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5%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위험을 짊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반면 안정적 투자는 위험 부담이 없는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채테크에서도 금리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는 물론 채권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임에도 금리가 6%에 육박하고 있어요. 현금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채권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은 폭등과 폭락이 비일비재하지만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다. 부모와 같은 큰 위험이 없는 채권일수록 안전하겠죠. 목표하는 수익률을 먼저 고민해보고 금리와 위험도를 파악한 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Q. 앞으로 금리 변동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A. 전망이라는 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3%까지 올랐으니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자나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향후 추가 금리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죠. 만약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 연준의 동향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라별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향을 좇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지켜봐야겠죠.

Q. 독자에게 금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A. 금리는 투자의 바로미터입니다. 금리는 채권, 주식, 외환, 부동산 시장 등 전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에 민감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기업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죠.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최근 높아진 대출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 바로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니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